
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
(황명선의원 대표발의)

|          |     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<br>번호 | 3251 |
|----------|------|

발의연월일 : 2024. 8. 27.

발 의 자 : 황명선 · 이재관 · 박민규  
송옥주 · 김현정 · 김남근  
박희승 · 송재봉 · 정동영  
김영진 · 권향엽 · 염태영  
박용갑 · 임광현 · 이해식  
장경태 · 강득구 · 김우영  
오세희 · 박지혜 · 윤건영  
채현일 · 임미애 · 이광희  
박균택 · 문금주 · 홍기원  
한민수 · 전진숙 의원  
(29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은 불법촬영물과 그 복제물을 제작·배포, 소지·구입·저장·시청하는 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

그러나, 사람의 얼굴·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의 허위영상물, 이른바 딥페이크 기술로 제작된 영상물등에 대한 구입·소지·시청·저장·판매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는 실정임.

최근 전국의 대학교에서 딥페이크 성착취물 사건이 발생했고, 심지어 중·고등학교까지 그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등 매우 심각한 상황임.

이에 허위영상물을 구입·소지·시청·저장·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고, 이러한 행위를 상습적으로 한 경우 그 형을 가중하여 디지털성범죄의 근절 및 예방등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14조의2제4항 및 제5항).

##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의2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4항) 중 “제3항”을 “제4항”으로 한다.

-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구입·소지·시청·저장·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       행   | 개        정        안  |
|--|--|
| 제14조의2(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) ① ~ ③ (생략)<br><u>&lt;신설&gt;</u>  | 제14조의2(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br><u>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 등 또는 복제물을 구입·소지·시청·저장·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</u> |
| 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. | ⑤ ----- 제4항-----<br>-----<br>-----<br>--.  |